



정기현 작
'실험실-예외점 +4 °C'

서른살 조선대미술관 재도약 꿈꾼다

'아트밸리' 프로젝트 진행... 현대미술 실험 현장 국내외 설치미술가 초청... 오지호 작품 등도 전시

12일 조선대 본관 '김보현&실비아홀드 미술관' '찰나의 빛, 영원한 색채, 남도'전에 출품된 쟁쟁한 작가들의 작품을 접하며 새삼스레 '조선대 미술대학'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볼게됐다. 김보현·오지호·천경자·백영수 등 미술학과 창설 교수들의 작품은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증거였다. 1946년 첫 입학생을 받은 조선대 미술학과는 지금까지 술한 작가들을 배출하며 남도 화단의 구심점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한국 화백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1989년 문을 연 조선대미술관(관장 김승환 시각문화큐레이터 전공 교수)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굼직한 전시회를 기획, '아트 밸리'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동문 출신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연구 등을 해왔던 데서 벗어나 '조선대 학교를 넘어, 남도를 넘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제화와 함께 동시대 현대미술의 실험 현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기획이다. 특히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이라이프이 조선대 운동장에서 열리게 된 것을 계기 삼아 국내외 관람객들에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는 포부도 담았다.

조선대 미술대학 2층에 문을 연 조선대미술관은 지역 미술관으로는 1992년에 문을 연 광주시립미술관보다 3년 앞서 설립됐고 대학 미술관으로는 홍익대학교 미술관(1967년)에 이어 두번째로 설립된 역사 깊은 공간이다.

◇ '물, 생명, 상상력'전
아트밸리 프로젝트의 메인전시로 수영대회를 기념해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설치미술작가를 초청했다.

박선기 작가는 나일론 줄에 매달린 숯들의 집합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유리 조형예술가 김형중 작가는 유리로 만든 수백명의 인물 군상을 전시한 '실루엣'을 선보인다.

미디어아티스트 박상화 작가의 작품 '무등판타지아-사유의 가상 정원'은 관람객들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 거닐 수 있고 바닥에 놓인 빈백에 편히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화전민의 삶을 포착해온 금민정 작가의 작품은 영상과 소품을 통해 평화로운 너머에 있는 '현실'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밖에 김인경 작가는 군장처럼 보이는 배낭을 연결해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설치작품을 선보이며 물고기·식물 등을 활용한 정기현의 설치작품과 포토존으로 구성된 황중환 작가의 일러스트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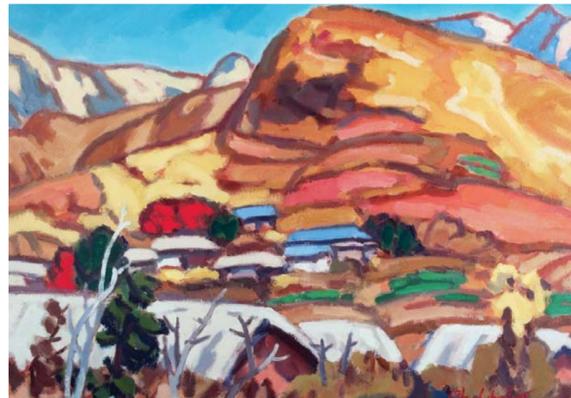
오는 7월28일까지 열리며 20일 오후 4시 개막 퍼포먼스와 함께 개막식을 진행한다. 관람료 성인 2000원, 학생 1000원.

◇ '찰나의 빛, 영원한 색채, 남도'전
8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인연이 있는 원로·중견 작가 작품을 전시한 기획전이다. 미술학과 초대 교수로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고(故) 김보현 화백의 대형추상 작품이 인상적이며 오지호 화백의 '추경'과 담백한 '자화상'이 눈길을 끈다.

다. 천경자 화백의 불펜 드로잉 작품, 동심이 가득 담긴 백영수 화백의 '아이와 새', 오승우 화백의 풍경화, 독특한 색감으로 그려낸 양의 모습이 인상적인 임직순 화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미술학과 교수를 거쳐 각 작가들의 예전 작품을 볼 수 있는 점도 흥미롭다. 황영성 작가의 '가족 이야기' 시리즈와 상큼한 녹색이 주는 편안함이 인상적인 양계남 작가의 작품, 지금의 화사한 색채 대신 묵직하고 어두운 색채로 표현해낸 최영훈 작가의 '무등산'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또 진양옥·조규일·김영태·국용현·윤재우·박구환·한희원·김유섭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조선대 캠퍼스 곳곳에 '스트리트 아트'작업이 펼쳐진다. 프랑스 출신 세프, 제이스, 위도가 참여해 미술관 옥상 등에 유쾌한 작품을 설치했으며 작품 제작과 관련한 동영상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62-230-676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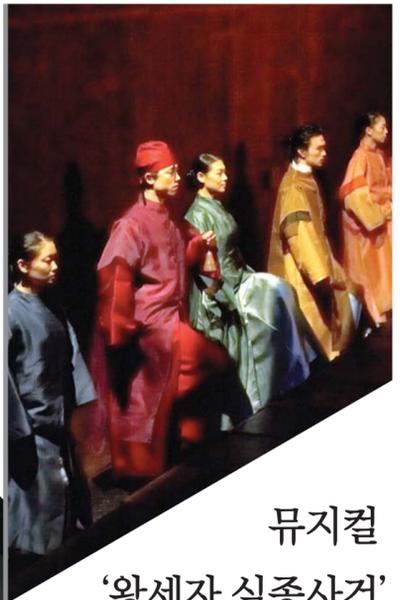
오지호 작 '추경'



백영수 작 '새와 아이'



젊은 무용가들의 무대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극단 '죽도록 달린다' 공연
15일 광산문화예회관

극단 '죽도록 달린다'가 오는 15일 오후 5시 광산문화예회관에서 창작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을 공연한다.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2005년 예술의전당 자유젊은연극시리즈로 선정된 연극 '왕세자 실종사건'의 뮤지컬 버전을 무대에 올린다.

100분동안 관객들은 복잡하게 얽히는 사건 속에서 펼쳐지는 나인 자숙이와 내관 구동이의 사랑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다. 어느 날 조선에서 왕세자 실종 사건이 발생하자, 감찰 상공인 최상공의 진술로 중궁전 나인 자숙이와 동궁전 속직 내관 구동이가 용의자로 지목당한다. 이들을 취조하던 중 자숙이가 왕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고, 신분상승을 꿈꾸던 최상공의 시기, 배신감에 사로잡힌 중진, 구동이의 자숙이의 사랑 등이 얽혀 점차 사건은 본질에서 멀어지고,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황호준 작곡가가 작·편곡하고 서재형 연출가와 한아름 극작가가 참여한다.

서재형 연출가가 지난 2007년 창단한 극단 '죽도록 달린다'는 연극 '죽도록 달린다', '호야', '청춘 18대 1' 등 작품을 창작·공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번 작품은 지난 2010년 초연해 '제5회 더 뮤지컬 어워즈', '제18회 한국뮤지컬 대상', '베스트 창작 뮤지컬상-연출상' 등을 수상했다.

관람권 4장을 1만원에 구입 할 수 있는 '만원의 만찬 패키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전석 3000원. 문의 062-960-8833.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현대무용단 '차세대 안무전'

1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서울의 젊은 무용가들이 광주에서 창작 무용 무대를 펼친다.

광주현대무용단(대표 임지형 조선대교수)이 오는 16일 오후 3시와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무용 공연 '차세대 안무대전'을 연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상주단체 우수 레퍼토리 초청 공연의 2번째 무대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광주·서울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창작 무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공연은 '한빛현대무용단'(광주)이 'Bring together mind'(안무 장연향)를 공연하며 막을 올리고, '문덕 댄스프로젝트'(서울)가 '완전하지 않은 합연주'(안무 김문주·김덕영), '박주상&비엔피무용단'(서울)이 한승원의 소설 '물에 잠긴 아버지'를 춤으로 표현한 '흑과 백'(안무 박주상)을 무대에 올린다.

또 '댄스플라츠'(서울)는 인간이 일으킨 환경오염 문제를 묘사한 작품 '막:塵'(안무 민수경·박민영)을 선보이고, '김유진 댄스컴퍼니'(광주)는 만남·인간관계를 춤으로 풀어낸 작품 '삶의 흔들림조차 춤이다'(안무 김유진) 무대를 마련한다.

임지형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교수가 안무에 슬감독을 맡고 이수영씨가 연출했다. 전석 초대. 문의 062-230-7423.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안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택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특허공법

특허공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6년무상A/S/정기점검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